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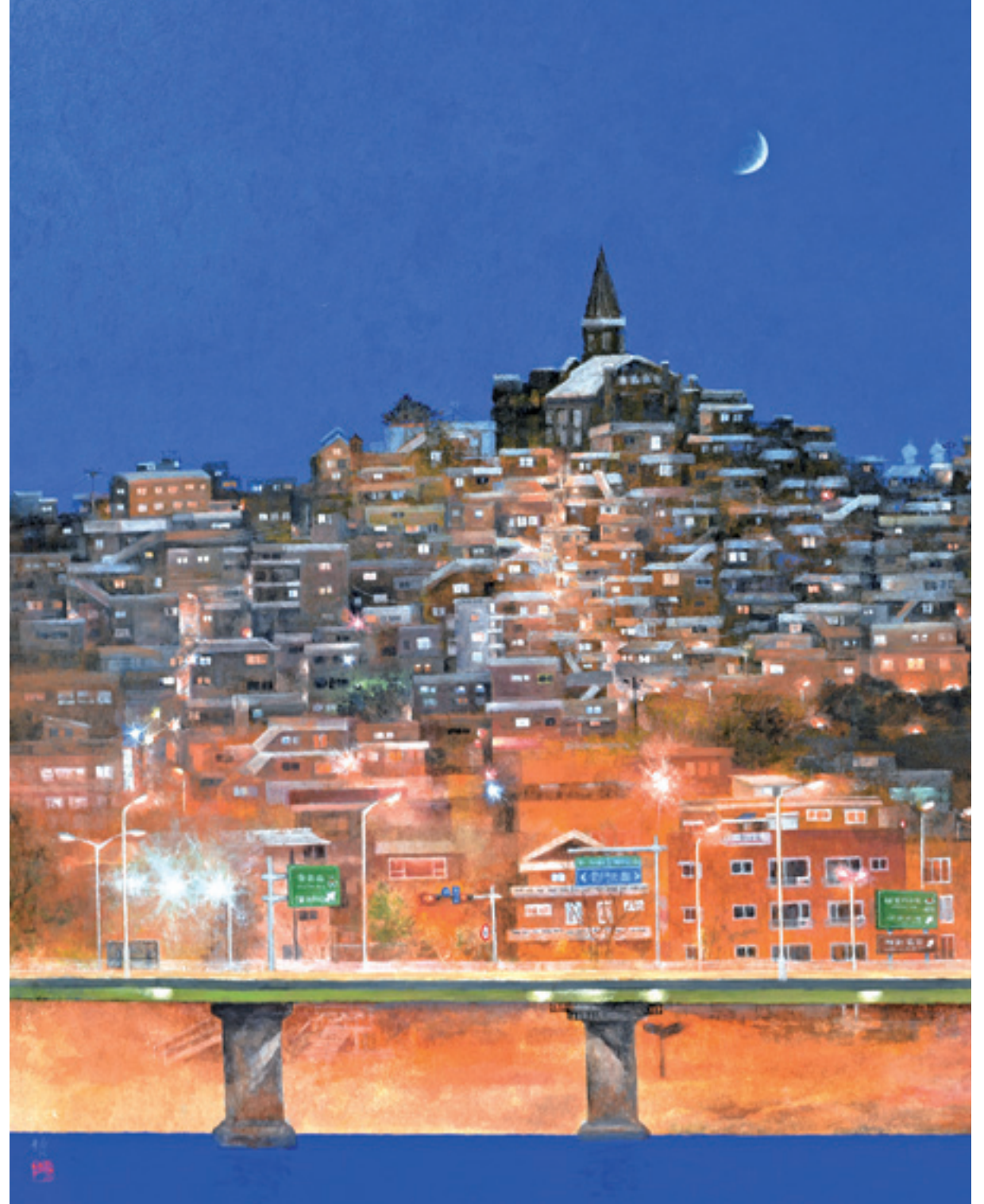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나에게 플러스 되는 나눔!**

나에게 플러스되는 나눔플랫폼, 사랑의열매

**나눔플랫폼**

사랑의열매 연중광고 모델  
비(정지훈), 추(김지우)



강내교, '한남동북단 op.9 no.2'

**사랑의열매** 

2023  
**10**



사랑의열매 웹진바로가기



# 사랑의열매는 투명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 기관들을 지원하며, 자체 모니터링, 정부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플랫폼입니다.

기부금의 **94%**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2022년 지원금액  
**7,334**억

2022년 모금금액  
**7,925**억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지원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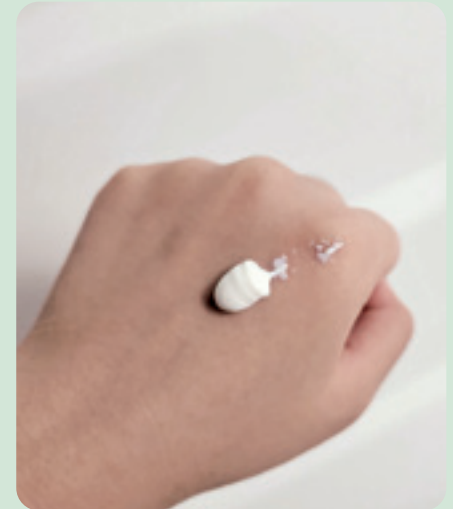
홈페이지가기

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 1,578억	노인 954억	장애인 469억	여성 / 다문화 343억	위기가정 1,852억	지역사회 2,035억	해외 / 북한 103억	
사업분야	기초생계 3,857억	교육 / 지원 915억	주거 / 환경 735억	보건 / 의료 528억	심리 / 정서 285억	사회적 돌봄 강화 659억	소통 / 참여 확대 210억	문화복지 해소 145억

[해당 지원내역은 2022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7,334억 원으로 전국 약 3만 개의 협력 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 자외선 차단제 독자 체험 후기 제로 웨이스트 제품 직접 사용해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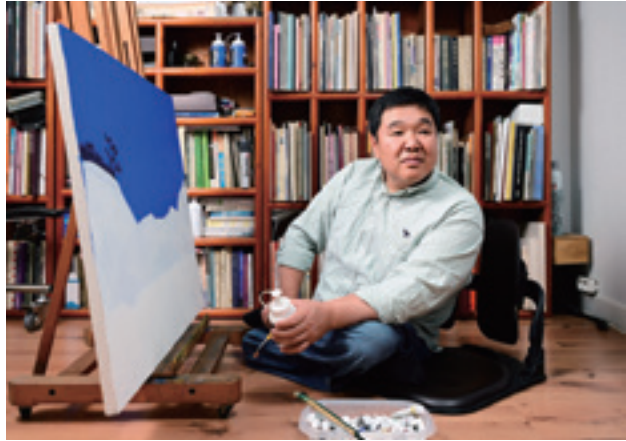
● 비싼 브랜드부터 저렴한 제품까지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를 써봤는데, 가격을 떠나 제 피부랑 잘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피부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라 기름기가 너무 많은 제품과 백탁 현상이 나타나는 자외선 차단제는 거르게 됩니다. 이번에 독자 체험으로 받은 제품은 부드럽게 잘 발리고, 향기도 강하지 않아 괜찮았습니다. 더욱이 환경까지 생각하는 착한 제품이라 앞으로도 계속 이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 경남 밀양시 송나영



● 무기자차라 백탁 현상으로 얼굴이 희게 떠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적은 양으로도 부드럽게 발려서 놀랐습니다. 화장을 해도 밀리거나 두꺼워지지 않고, 더운 날씨에도 녹아 흘러내리지 않아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활용하기 좋은 꿀템입니다. 예민한 피부인데도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게 느껴져 좋았어요!  
- 서울시 성동구 박병준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튜브 짜개·비누 받침·칫솔꽂이를 보내드립니다 \*14-15페이지 그린 열매 참고

- 1 매월 20일까지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mailto:cckpr@chest.or.kr)로 제로 웨이스트 제품 체험을 신청한다.
- 2 메일을 보낼 때 이름과 연락처, 받을 주소를 적는다. (총 3명 선정)
- 3 일주일 동안 제품을 사용한 후 간단한 후기를 적어 인증 사진과 함께 사랑의열매에 이메일로 보낸다. (후기는 다음 달 '그린 열매 플러스'에 게재할 예정)



## 04 표지 이야기

일상 풍경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강내균 작가

## 06 나눔 여행

조선 왕릉에서 만끽하는 가을,  
그리고 이야기

## 10 매슐랭

진짜 로컬 맛집, 부여 '행복낙지' 본점  
백선옥 대표

## 14 그린 열매

예쁘고 쓸모 많은 업사이클링 제품

## 16 모두의 나눔

명랑하고 즐거운  
인생 후반전을 위하여

## 24 내 인생의 한마디

애터미 박한길 회장의 '우리'를 위한 나눔

## 28 소중한 진심

퇴직 기념 나눔리더 가입한  
전남자원봉사센터 이성태 사무처장

## 30 나눔 소식

착한펫 론칭 선포식

## 32 나눔이슈

가수 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위촉

## 33 나눔인

경기 사랑의열매 제7대 권인욱 신임 회장

## 34 착한기업

부산·경남 물류의 시작점, 수정산투자(주)

## 38 다른 그림 찾기

## 39 전국 열매 이야기

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강원·세종

## 52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54 전국 지회 뉴스

## 64 나눔 만화

## 이달의 표지



○ 강내균,  
'한남동북턴 op.9 no.2'  
100×72cm, 한지 채색

VOL. 198  
2023.

10

## 사랑의열매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3년 10월 / 통권 198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일상 풍경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강내균 작가

## “...살아갈 만한 인생입니다”

불편한 몸도 타고난 역마살을 이기진 못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사방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마주한 세상은 오롯이 화폭에 담긴다. 우울과 외로움 사이, 그가 그리는 것은 희망이다. 강내균 작가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 작업실에 작품이 없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강내균 작가의 작업실에 들어서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대개 작가의 작업실이라 하면 크고 작은 캔버스가 공간을 채우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강내균 작가의 작업실에는 현재 작업 중인 작품 사이로 몇 점만 보였다.

“워낙 다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림이 많지 않아요. 계약한 곳들은 작품이 완성되면 다 가져가고(웃음)” 강내균 작가는 자기가 게으른 탓도 있다며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이는 겸손한 말이다. 그의 작품은 그리는데로 팔려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걸 이미 입소문을 통해 들은 터였다. 커커이 쌓인 캔버스가 없는 작업실에서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을 뿐이다. 인기 작가의 작품을 〈사랑의열매〉 10월호 표지로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보다 기대감이 커졌다. 강내균 작가는 가끔 동네 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비치된 사랑의열매 모금함에 성금을 넣고 배지를 받아와 주변에 선물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의열매 표지 작가로 선정까지 되니 어떤 인연이 이어진 것 같라며 신기해 했다.

“대한민국에 사랑의열매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사랑의열매〉 표지 작가로 선정됐더니 아내가 정말 멋지다며 기뻐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번 장애인 미술대전에서 입상한 작품으로 표지에까지 소개돼 영광입니다.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기분이에요.”

### 푸른빛 사이로 희망이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강내균 작가는 한지 위에 신비로운 색감을 한껏 펼친다. 커피를 이용한 채색은 그가 최초로 고안해낸 기법이다. 수묵화와 채색화의 접목은 자칫 촌스러울 수 있으나, 강내균 작가는 누구보다 세련되게 화폭에 담아낸다. 〈사랑의열매〉 표지 작품 ‘한남동녹턴 op.9 no.2’ 역시 그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깊고 맑은 블루가 배경을 채운다. 다리 위 가로등은 음표를 상상하며 그린 작가의 리듬이다. “한남대교를 건너 대학을 다녀서... 한남동 풍경은 제게 익숙해요. 어느 날, 쇼핑의 녹턴과 함께 그 풍경이 마치 악상처럼 떠올라 그리게 됐죠. 푸른색은 우울함을 뜻하지만, 달빛부터 가로등 불빛 그리고 집들의 창문 빛까지 환하게 빛나는 것들은 모두 희망입니다.”

강내균 작가는 두 살 무렵 소아마비를 앓았다. 그러나 장애는 밝고 적극적인 성향의 그에게 결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친구들이 북적였으며, 하고 싶은 일은 그게 무엇이든 도전해서 해내고야 말았다. 전업 작가로 승승장구하며, 작품 구상을 위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디든 간다. 최근에는 동유럽을 한 달 동안 다녀왔다. 그런 그의 긍정적 에너지는 작품에 고스란히 담긴다. 오늘도 아름다운 삶을 노래하는 강내균의 작품 속으로 흠뻑 빠져들어보자. 🍀

### 작가 주요 profile

- 1991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 1995 제1회 개인전(백악미술관) 외 14회
- 2012 우에노 미술관 초대전(도쿄) 외 국내외 단체전 200여 회
- 2006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전
- 2022 행복마루 2인초대전 (LG사이언스파크 내)
- 2021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대상
- 2023 대한민국장애인문학·미술대전 우수상
- 현 한국미협, 한강미협, 노원미협, 서울아카데미회, 장미협, 경기국제미술창작협회



“우울함을 표현하는 블루는 그저 배경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그 사이 환하게 빛나는 달빛, 어두운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집 안을 밝히는 불빛들이죠. 희망입니다.”





# 조선 왕릉에서 만끽하는 가을, 그리고 이야기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덕수궁 전경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운영하는 '왕릉천(千)행'은 하루 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 왕릉과 궁궐을 여행하는 체험형 답사 프로그램이다. 신의 정원'이라 일컫는 아름다운 조선 왕릉, 그리고 그곳에 잠든 각기 다른 사연의 주인공 이야기가 여섯 가지 테마로 펼쳐진다. 10월까지 이어지는 2023 조선왕릉길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 제국의 길을 가는 '황제의 길'

조선 시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황제의 권위를 보여주는 남양주의 흥릉과 유릉은 다른 왕릉과 조금 다른 느낌이다. 특히 흥릉은 그 조성 배경이 1895년부터 1919년까지라 자주와 독립, 그리고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근대 역사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곳이다. 대한제국의 역사적 현장이던 전통 목조건축과 서양식 건축이 함께 남아 있는 곳으로, 조선왕조 궁궐 가운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덕수궁과 조선 왕릉 형식이 아닌 대한제국 황제의 능 형식으로 조성된 흥릉과 유릉을 돌아보며 조금은 덜 알려진 대한제국 역사를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덕수궁 함녕전 전경

## 그리움 담은 '단종의 길'

왕위에서 쫓겨난 소년 임금!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충신들이 그를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계획이 밝혀져 영월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단종이 죽자 후환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영월 호장 엄흥도가 장사를 지냈다. 그래서일까? 영월 장릉은 일반적으로 조선 왕릉과 달리 단종의 충신들을 위한 건축물이 있다. 단종의 흔적이 담긴 영월의 유적, 그리고 단종이 잠들어 있는 영월 장릉을 통해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코스다.



영월 장릉



단종 유배지 영월 청령포



왕릉천행 예약 [booking.naver.com](http://booking.naver.com) 문의 02-738-4001(조선왕릉길 운영사무국)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 왕실 제례를 보는 '제향의 길'

종묘와 구리 동구릉을 돌아보는 코스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魂)은 하늘로 돌아가고 백(魄)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왕의 혼이 머무는 곳이 종묘라면, 왕의 백이 잠들어 있는 곳은 왕릉이다. 이처럼 종묘와 왕릉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공간이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후 및 추존된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와 '동쪽에 있는 9기의 능'이란 뜻으로 조선왕조 최대의 왕릉군을 이룬 구리 동구릉을 걸으며 두 공간의 의미와 역대 조선 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경복궁 경회루



서울 태릉

### 왕실을 이어가는 '왕비의 길'

왕실의 며느리, 왕의 부인, 왕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왕비의 길은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 조선의 법궁으로 왕비의 생활공간이던 경복궁,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간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와 단종비 정순왕후가 잠들어 있는 서울 태릉과 남양주 사릉을 통해 왕비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코스다.



파주 소령원

### 왕실 사랑 담긴 '숙종의 길'

역사 드라마의 단골 남자 주인공 중 한 사람이 바로 숙종이다. 조선 시대 왕의 생모로서 왕비가 되지 못한 7명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칠궁, '서쪽에 있는 5기의 능'이라는 뜻으로 구리 동구릉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고양 서오릉, 숙종의 후궁이자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무덤 파주 소령원을 돌아보며 왕실의 사랑을 느껴본다. 숙종과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 그리고 세 번째 왕비 인원왕후는 각각 숙종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궁녀에서 세자를 낳고 왕비로, 다시 죽음의 명을 받은 희빈 장씨와 궁녀에서 후궁이 되어 왕자를 낳은 숙빈 최씨는 또 어떤 존재였을까? 사랑이 담긴 왕실의 길을 걸어보자.



여주 영릉

### 성군을 꿈꾼 '세종의 길'

조선 최고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흔적을 따라 서울 한릉과 인릉, 여주 영릉(英陵) 등을 답사한다. 특히 여주 영릉은 많은 사람이 찾는 조선 왕릉 가운데 하나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물론, 소헌왕후와의 사랑, 한글 창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발걸음일 터. 영릉은 원래 현 서울 현 인릉 경내 인릉 자리에 소헌왕후의 능을 먼저 세종을 합장해 최초의 합장릉으로 조성했으나 풍수상 불길하다고 하여 현재의 여주로 옮겼다. ❀



# “오직 맛으로 승부한 세월이었죠!”

양념만 남아도 당연한 듯 포장해주는 집이 있다. 아니, 그냥 남기고 가면 오히려 싸줄 테니 집에 가서 밥을 볶아 먹거나 소면을 넣어 비벼 먹으라고 한다.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만든 음식임을 사장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오직 맛으로 부어를 사로잡은 행복낙지다. 글강은진 사진감기남



## 현지인이 꼽는 찐 맛집

다른 지방을 가게 되면 누구나 현지인 맛집을 검색해본다. 모처럼 떠난 길, 한 끼라도 맛있는 미식 시간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서다. 하지만 현지인 맛집이란 게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이 찾아내긴 힘든 일이라 언제나 성공과 실패의 명암이 극명하다. 그래도 부어를 방문한다면 실패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완벽한 현지인 맛집 ‘행복낙지’가 있기 때문이다.

“부어 맛집을 검색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외식업 대표님이 저희 집에서 드시고 ‘백 사장, 맛있게 먹었어!’ 하고 가시더니 친구분들 모시고 왔더라고요. 또 그 친구분 중에 서천 분이 다른 서천 분들 모시고 오고, 또 그 서천 분들 중 한 분이 교회 목사님 모시고 오시고, 또 그 목사님이 신도 분들이랑 오시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도록 한 건 바로 맛이었죠.”

행복낙지 백선옥 대표는 낙지 요리 하나로 부어를 넘어 충청남도 서남부를 평정한 맛의 여걸이다. 바다가 인접한 서천 주민들까지 낙지 맛을 보러 부어까지 오게 만든 주인공이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싶다.

부어 행복낙지는 낙지 요리 전문점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행복낙지를 검색하면 부어 주민들이 맛있다고 남긴 후기가 줄을 잇는다. 낙지볶음덮밥을 중심으로 갈낙전골, 연포탕, 탕탕이, 낙지매운족발, 낙지만두 등 입맛 도는 낙지 요리가 한가득이다. 모두 백선옥 대표와 주방을 총괄하고 있는 그의 남편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조리한다. 그렇기에 30년 외식업 인생에 가장 기쁜 일도 비법 소스를 완성했던 순간을 꼽는다.

## 소스 하나까지 직접 개발

지금의 행복낙지가 있기까지는 숏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낙지볶음 레시피를 개발하는 게 힘들었다. 쉽게 가맹점을 통해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백선옥 대표는 직접 개발하는 쪽을 택했다. 외식업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란단다.



진짜 로컬 맛집 부여 ‘행복낙지’ 본점 백선옥 대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외식업”이라고 말하는 백선옥 대표는 30년간 우직하게 음식을 만들어왔다.



“낙지 손질부터 소스 개발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부드러운 낙지 육질을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 어떻게 손질해도 타이어처럼 질긴 거예요. 또 한번은 계량을 잘못해 소스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버리는데… 정말 내 피를 쏟아붓는 기분이었어요.(웃음)”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백선옥 대표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해진다. 부여가 고향인 백선옥 대표는 원래 서울에서 무역 회사를 다녔다. 직장 생활을 하며 서울 사람인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외식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회식을 해도 소고기가 기본이던 호황기였다. 직장보다 사업이 낫겠다는 판단에 부부는 의기투합해 대전에서 외식업을 시작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돼지갈빗집과 지금의 낙지 전문점까지 그야말로 대형 외식업체 대표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대전 사업체를 모두 정리하고, 2014년 고향 부여로 와 낙지 전문점에 주력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완성한 낙지볶음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의 표정 속에서 오직 저만 느낄 수 있는… 뭔가 하나 빠진 느낌이 있는 거예요. 순간 ‘아! 그걸 넣었어야 했다’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분명 어제의 낙지볶음도 맛있게 먹던 손님들이었다. 그러나 백선옥 대표의 마지막 화룡점정 양념이 추가되자 하나같이 “백 사장, 지난번보다 더 맛있네!” 하고 찬사를 보냈다. 대체 비법이 무엇이나 몰으니 그저 “사랑을 듬뿍 넣었다”며 웃고 만다.

낙지볶음과 더불어 갈낙전골의 인기도 엄청나다. 갈낙이란 갈비와 낙지를 합한 말로, 유명 갈빗집을 운영했던 만큼 특제 소스 노하우가 더해져 별미 중 별미다.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백선옥 대표.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보여주기 식은 한 번은 해도 두 번은 힘들어요. 내 생활이 흔들릴 정도로 무리하지도 마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오랫동안 나눔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지역을 위해 뛰는 나눔 여걸

부여에서 낙지 하면 행복낙지고, 나눔 하면 백선옥 대표일 것이다. 그만큼 백선옥 대표는 지역을 위해 다양한 나눔을 펼치며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행복낙지에 가면 입구에 붙은 착한 가게 명패로 시작해 나눔리더 인증패에 각종 표창장이 즐비하다. 그의 나눔은 외식업을 시작한 대전에서부터였다. 식당을 운영함과 동시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 식사 대접은 물론, 방학이면 지역 결식 아동·청소년들을 챙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했다. 그런 그의 헌신은 부여에서도 이어졌다. 고향이지만 오랜만의 귀향이다 보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군청 사회복지과로 직행했다.

“부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어 군청에 갔더니 마침 담당자가 학교 선배 아니겠어요?(웃음) 찾아온 저보다 오히려 선배가 더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때 나눔리더도 부여에서 1호로 가입하게 되었죠.”

2017년 나눔리더에 가입한 백선옥 대표는 그 이후에도 부여를 위해 100만 원씩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손수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하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도 했다. 워낙 나눔에 앞장서다 보니, 이제는 군청 사회복지 담당자나 면장이 “도와달라”, “나서달라” 청해올 정도다.

“내가 덜 먹고 덜 입어도… 주는 기쁨이 있어요. 나눔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부모님에게 내가 밥 한 그릇 더 드린다 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업도 나눔도 다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신한 영향력으로 지역을 따뜻하게 가꾸어가는 백선옥 대표의 행복낙지! 맛의 비결도, 나눔의 비결도 오직 사랑이다. 🍷

- 1 깊은 맛이 일품인 갈낙전골은 행복낙지를 찾는 단골들의 인기 메뉴다.
- 2 매콤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육질이 일품인 낙지볶음달반은 그야말로 밥도둑이다.





재활용 말고 새활용

## 예쁘고 쓸모 많은 업사이클링 제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말로 새활용이라 표현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새롭게 변신한 재활용 제품을 소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각 판매처 참고 서울새활용플라자



버려진 병뚜껑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키링  
판매처 지구샵(www.jigushop.co.kr) 가격 4,000원



### 물뿌리개

작은 새 부리처럼 생겨 얼핏 봐선 귀여운 장식품 같지만, 오늘날식물에서만 든 물뿌리개 비크(Beak)다.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을 성형해 만들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2L 페트병 입구에 결합하면 물뿌리개로 변신! 다 쓴 페트병을 여러 번 사용하면 새활용에 재활용까지 더하는 셈이다. 또한 식물에 물을 주는 용도가 아니라도 인센스 홀더로 활용할 수 있다.

판매처 오늘식물(oneulsikmul.kr) 가격 1만 9,000원



### 알약커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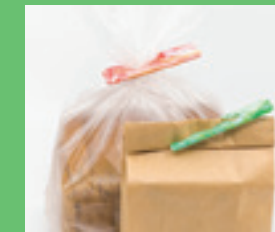
병뚜껑 약 20개를 활용해 만든 알약 커팅기다. 고체 치약 한 알이 너무 커 잘라서 사용하고 싶다는 지구샵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제품이다. 고체 치약 외에도 알약을 잘라서 복용하는 사람도 많이 이용한다. 커팅기를 열어 아래 V자 부분에 알약을 놓고, 뚜껑을 닫으면 알약이나 고체 치약을 쉽고 안전하게 자를 수 있다.

판매처 지구샵(www.jigushop.co.kr) 가격 9,900원

### 밀봉 클립

한 번에 다 먹기 힘든 시리얼, 식빵 등을 보관할 때 유용한 밀봉 클립이다. 병뚜껑 약 5개를 활용해 만든 제품으로, 일회용 밀봉 클립보다 단단해 쉽게 부러지지 않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 끼우는 방식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가볍게 고정할 땐 지그재그 홈에, 밀봉해야 할 땐 구멍에 모아 넣으면 된다.

판매처 지구샵(www.jigushop.co.kr) 가격 4,000원



### 튜브짜개, 비누 받침, 칫솔꽂이

노플라스틱선데이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욕실을 한층 화사하게 바꿀 수 있다. 치약, 화장품, 핸드크림 등 다양한 튜브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튜브 짜개, 힘들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좋다. 칫솔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싶다면 칫솔꽂이가 제격이다. 가족 수만큼 칫솔꽂이를 놓아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가볍고 튼튼해 깨질 염려가 없다. 쉽게 무르는 고체 비누를 물기가 쉽게 흘러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 비누 받침대 위에 올려두면 뽕뽕송송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다.

판매처 노플라스틱선데이(noplasticsunday.com)

가격 튜브 짜개 4,000원, 칫솔꽂이 5,000원, 비누 받침 8,000원





# 명랑하고 즐거운 인생 후반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 스스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나서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누구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미세스손그림



## 대전 동구지역 어르신을 위한 양질의 식사 제공 ‘목요 미식회’

▶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1990년부터 무료 급식 시설인 대전성모의집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에게만 사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는 무료 급식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KT&G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지난 6년 동안 60세 이상 저소득 및 복지 소외 계층 노인, 노숙인에게 주 5회 양질의 식사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급식 대신 도시락을 제공해 당초 예상한 8,000명보다 더 많은 1만 4,032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달했다. 또한 KT&G 임직원이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1 KT&G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2 목요 미식회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특식을 제공해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좋아했다는 후문. 사진은 갈비탕을 준비하는 모습 3 급식 배식 봉사 활동 중인 KT&G 임직원

### MINI INTERVIEW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김현주 차장**

Q 주 5회 점심을 제공하는데 왜 ‘목요 미식회’로 사업 부제를 정했나요? 매일매일 정성을 다하지만, 목요일에 더 특별한 식사를 대접하고자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통해 치킨, 구절판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특식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사업 대상자분들이 도토리묵을 쑤어서 오신다거나 모과차를 만들어 오시는 등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Q KT&G와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전성모의집은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행려인, 노숙인 등이 방문하셔서 행정적인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KT&G와 사랑의열매 지원은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까지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후원의 손길이 현저히 줄고, 부수적인 부자재 비용 증가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KT&G의 후원금 덕분에 무료 급식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취약노인의자가관리능력향상을 위한 스마트마음건강돌봄플랫폼 '모두의디지털백신(백세까지건강하고신명나게)'



▶ 코로나19로 교육, 생활, 보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런 흐름과 반대로 노인의 디지털 소외와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취약 노인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사랑의열매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사회백신 프로젝트에 선정돼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스마트 마음 건강 돌봄 플랫폼 '모두의 디지털 백신' 노인 기술-돌봄서비스 융합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을 개발하고 스마트 돌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노인 특화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취약 노인 일대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른이 서포터즈(생활지원사) 디지털 튜터 양성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노인의 자립적 생활능력 유지,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전국 16개소 수행 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는 중이다. 2 바른이 서포터즈가 일대일로 진행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3 노인 특화 교육 콘텐츠 중 하나인 마음 돌봄 키트, 비누 만들기 DIY 활동 중인 사업 참여자 모습



수행 기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사업과 연계해 진행한 키오스크 체험 영화관 나들이에 나선 참여자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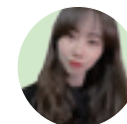


2



3

## MINI INTERVIEW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전현정 주임**

- Q **지난해 진행한 1차 연도 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해준다면요?** 지난해 취약 노인 512명, 생활지원사 167명이 참여해 진행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돌봄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립하고, 각 지역의 수행 기관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자체 프로그램을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스마트 기기나 DIY 키트 등 다양한 보조제를 각 지역 수행 기관에서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나아가 자체 프로그램까지 확장하는 것을 보며 디지털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Q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튜터 양성 교육을 받고 취약 노인 가구를 방문해 ICT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른이 서포터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른이 서포터즈에게 제공한 영상 및 도구, 노인 친화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은 지난해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 고도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는 작년보다 얼마나 현장 친화적으로 바뀌었는지, 지속해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 등을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Q **기존 사업과 비교해 어떻게 차별화를 이루었나요?** 저희 센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기관으로 정책 사업은 물론, 그 외 보완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른이 서포터즈는 기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댁내 서비스를 제공하던 생활지원사로, 친밀감이 형성된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참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Q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돌봄 영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제안 모델을 사랑의열매 지원을 통해 구체화하고 운영해봄으로써 향후 다른 후원 사업이나 정책 사업과 연결해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환자의 (재)입원 및 사회적입원 감소를 위한 마을간호스테이션, 의료복지안심주택연계형 통합 돌봄 '병원에서마을로'



1 의료와 주거 통합 지원을 위해 진행된 콘퍼런스  
2 의료적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왕진하는 마을간호스테이션

▶ 퇴원을 미루는 사회적 입원과 재입원을 하는 회전문 현상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됨에 따라 2021년부터 의료 행위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의 지역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내 준비는 미흡한 상태다. 이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먼저 마을간호스테이션은 왕진과 방문 간호부터 의료적 접근이 어려운 중증·만성질환자의 긴급 의료 처치, 의료 불안에 대한 정기적 관리, 당사자 및 돌봄자를 위한 교육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 의료복지안심주택에선 의료와 주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진다.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기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의료 복지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한 한편, 단기 거주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과 서비스도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내 돌봄 자원 활동을 통해 퇴원 이후 고립되지 않고 다른 주민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2



3



4



5

3 의사의 왕진에 기반하기 때문에 마을간호스테이션은 간단한 간호 처치부터 중증도 환자 의료 개입까지 가능하다. 4 방문의료팀의 네트워크 회의 5 방문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의 필요에 맞춰 각자 역할을 나누어 방문한다.

## MINI INTERVIEW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혜란 팀장

- Q **올해 사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인가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왕진을 필요로 하는 재택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기적 운영 평가를 진행하며 보완해가는 중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방문 의료 사업이 제도와 정책으로 자리 잡아 필요한 분들에게 더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 Q **기존 방문 간호 사업과 차별화를 이룬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의사의 왕진에 기반하는 간호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왕진하고 간호 처치를 지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에 다른 사업 대비 의료 행위와 제공하는 간호 처치의 폭이 넓고, 중증도 환자에 대한 개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과정을 의사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 직군이 함께 통합 사정을 진행하고 환자의 필요에 맞춰 각자 역할을 나누어 방문을 이어갑니다.
- Q **의료복지안심주택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 사업의 목표인 (재)입원 및 사회적 입원의 감소를 위해서는 주거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자원 주택 4곳과 연계해 정기 방문으로 입주민 총 46명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안심주택 8개 호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장비가 있거나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의료와 주거의 연계를 본 사업을 통해 시도하는 중입니다.
- Q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본 사업을 통해 의사 왕진을 전제하는 방문 간호라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고,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하며 증가하는 방문 진료 요청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방문 의료 현장 경험은 관련 시범 사업이 확대되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기에 재택 환자분들에게도 저희 기관에도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 시니어디지털금융활용역량향상을위한디지털금융교육



▶ 사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 산업도 전체 거래의 91.4%가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는 등 빠르게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전통적 대면 거래에 익숙한 고령층이 금융 소외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신한은행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모바일 뱅킹, ATM 등 디지털 금융 활용법과 디지털 금융 사기 유형 및 대응법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림과 자세한 설명이 있는 교재를 제공해 교육 이후 시니어들이 반복 학습하며 디지털 금융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돕고 있다.

보조 강사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실습해보는 시니어



영업 종료 후 은행 지점에서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교육을 진행해 큰 효과를 거두었다.

### MINI INTERVIEW



####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이광태 사무국장

Q 그동안 이론 사업 성과를 꼽아주신다면요? 작년엔 50개 기관에서 1,000여 명에게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진행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행 영업 마감 후 해당 지점의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앱 활용법과 최근 나오는 STM 기기 활용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은행에서 교육하니 현장감도 있는 데다 직원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교육 효과도 좋았습니다. 올해는 은행 지점 내 현장 교육을 늘려 지난해보다 더 많은 횟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시니어들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곧 금융 소외 문제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금융 교육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올해는 모바일 뱅킹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활용법도 교육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Q 기존 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를 이루었나요? 기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과 목적 및 취지는 비슷하지만, 저희는 신한은행에서 만든 교육용 모바일 뱅킹 앱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모바일 뱅킹을 하기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인증서를 설치하기 어렵고 모바일 뱅킹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습니다. 교육용 모바일 뱅킹 앱으로 부담 없이 실습하고 체험하며 모바일 뱅킹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는 등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데도 열성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노령연금을 인출하기 위해 매달 은행을 찾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나마도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오지 못하니 은행 거래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셨어요. 모바일 뱅킹을 배운 후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좋아하시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





2019년 생소맘(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맘(MOM)) 기부자맞춤기금으로 100억 원을 전달한 애터미 박한길 회장(왼쪽)과 도경희 부회장

3대(代)가 모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 애터미 박한길 회장의 ‘우리’를 위한 나눔

애터미 박한길 회장의 손자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3대(代)에 걸쳐 총 9명이 아너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한길 회장의 남다른 나눔 철학에 따라 가족들도 기부에 동참한 것. ‘우리’를 위한 나눔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이선희 사진 애터미

### 나눔이 일상화된 기업인

애터미 박한길 회장 내외와 두 아들 내외, 그리고 3명의 손자까지 일가족 9명이 모두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3대 가족 아너가 탄생했다. 박한길 회장은 2014년, 도경희 부회장은 2015년 각각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2023년 3월까지 자녀와 손자까지 모두 가입한 데 이어 지난 7월, 박한길·도경희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추가 기부하며 일가 9명이 총 11억 원의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에 전했다.

박한길 회장의 나눔은 성공한 기업가가 되기 이전부터 시작했다. 한때 그는 쇼핑몰 운영 실패로 신용불량자로까지 전락했다. 누구보다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애터미를 시작하고 받은 첫 월급부터 나눔을 실천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서 20만~30만 원씩 떼어 사무실 인근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것. 박 회장은 “나눔은 가까운 곳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하는 것”이라며 나눔의 일상화를 강조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 느새 나눔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녹아들게 된다. 박 회장의 나눔처럼 말이다. 그를 두고 “나눔이 일상화된 기업인”이라 말하는 이유다.

### 국내 최초 미혼한부모가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애터미는 2019년 사랑의열매에 미혼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생소맘(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맘(MOM))’ 기부자맞춤기금 100억 원을 기부했다. 이는 중견 기업으로는 최고 금액으로,



“나눔이란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널리 사람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것, 박애이며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근간이 되죠.”

박한길 회장은 “소중한 생명을 선택해 청년기  
를 희생한 이들에 대한 보답”이라며 기금을 조  
성한 이유를 밝혔다. 생소맘은 단순히 미혼한  
부모가족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꿈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  
도록 통합 시스템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목표를 현실화한 게 바로 국내 최초 미  
혼한부모가족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한부모  
가족센터) 건립이다. 한부모가족센터는 연면  
적 1,243.10m<sup>2</sup>의 4층 건물로 커뮤니티 공간,  
키즈 카페, 도서관, 휴게 존, 상담실, 대교육  
장, 헬스장 등을 조성한다. 오는 2024년 9월  
에 준공되면 미혼한부모가족들이 출산과 양

육, 자립에 걸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담 치료, 주거 지  
원, 건강 지원, 아이 돌봄 코칭 등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500대기업 중 유일, 매출액 대비 기부금 2% 넘어

에터미의 적극적 나눔 활동은 수치로도 증명  
된다. 기업 경영 분석 전문 연구소 CEO스코어  
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에터미는 순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이 2.04%로 500대 기업 가  
운데 유일하게 2%를 넘었다. 전체 평균 0.09%  
에 비하면 22배 이상인 셈이다. 2022년에도  
249억 원의 기부금으로 연결 기준 순매출액  
대비 2.01%의 기부금 비중을 기록했다. 이처  
럼 폭넓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친 결과 생소  
맘 기부자맞춤기금과 캠페션, 실로암안과병원  
과 전주예수병원 등에 전한 기부금만 500억  
원에 육박한다. 이 밖에도 대전·세종·충남 지  
역을 위한 저소득·다문화·한부모 가정 지원,  
고등학교 교육 기자재 및 장학금 지원, 노인,  
아동, 장애 복지시설을 위한 생필품 및 지원금  
기부,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 등 다  
방면에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박한길 회장의 선한 영향력은 에터미 회원들

2019년 생소맘  
기부자맞춤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에터미 박한길 회장과  
도경희 부회장



지난 8월 23일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박한길 회장 일가의  
아너 가입식 모습.  
(왼쪽부터) 세종  
사랑의열매 박상혁 회장,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에터미 박한길 회장,  
도경희 부회장,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김윤희 대표

에게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에터미 회원인  
이혜정 임페리얼마스터는 “박한길 회장의 생  
소맘 기부자맞춤기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며, 북한 이탈 아동과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  
해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으로 10억 원을 기  
부했다. 또한 에터미 인도네시아 법인이 타피  
즈 그린리도 기숙학교의 교육 발전에 써달라고  
1억 루피아(IDR)를 기부한 것을 비롯해 중국  
법인은 중국의 오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만 법인은  
매년 달리기 행사인 에터미런을 통해 가오슝  
부근의 초중등학교에 체육 발전 기금을 기부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세계 25개국 애  
터미 해외 법인에서도 남다른 사회 공헌 활동  
을 펼치고 있다.  
박한길 회장은 “나눔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  
리’를 위한 것”이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  
리로 말한다. “내가 번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신 것”이라며 “내가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렇  
기에 박 회장은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따  
뜻한 나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



# “정년은 감사한 일, 고마운 마음 나눔으로 전했습니다”

전남 지역 자원봉사의 기틀을 다진 전남자원봉사센터 이성태 사무처장이 나눔으로 정년을 자축하며 모두의 귀감이 되었다.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그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서범세

## 평생 지역사회 위해 헌신

전남 지역 사회복지의 산증인이자 자원봉사의 기틀을 다진 전설적 인물이 있다. 바로 전남자원봉사센터 이성태 사무처장이다. 그는 전설이란 단어에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그동안의 이력만 살펴봐도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전남도청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전남 사랑의열매 창립 멤버로 사무

처장까지 지냈다. 이후 전남자원봉사센터로 자리를 옮겨 세월호 참사 현장이던 진도 팽목항을 무려 3년간 지키며 재난 상황 자원봉사 수칙 매뉴얼까지 만들었다. 이성태 사무처장을 빼놓고는 전남의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 그가 퇴직 기념으로 나눔리더에 가입해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했다.

“은퇴다 정년이다 하면 좀 우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정년은 굉장히 기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분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한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궁리해보니 역시나 나눔이더군요.”

이성태 사무처장은 IMF 외환 위기 시절과 맞물려 사랑의열매를 창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때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진도 현장에 A4 용지 한 박스와 사무용 칼, 테이프만 챙겨 달려간 일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 계속되는 나눔 도전

사회복지 전문가인 이성태 사무처장에게 나눔이란 그야말로 일이자 일상이었다. 다른 이들에게 나눔을 권하기 전 몸소 실천하며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틈나는 대로 한 헌혈만 지금까지 40회가 넘고, 직장 생활과 별개로 200시간 가까이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그뿐만 아니다. 크고 작은 기부 횟수는 113건에 이른다. 이성태 사무처장은 자신의 나눔 유전자는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라 말한다.

퇴직 기념 나눔리더 가입한  
전남자원봉사센터 이성태 사무처장



“정년을 앞두고  
고마운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답은 바로  
나눔이더군요.”

“전남 해남 산골에서 8남매를 키우신 저희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에도 오가는 행인까지 박대하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 사랑방엔 늘 사람들이 북적였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말씀은 부자 돼라 성공해라가 아닌 ‘남들에게 좋은 말 하며 살아라’였어요.”

이성태 사무처장은 정년과 동시에 새로운 나눔 도전을 시작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해주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사무처장으로 다시금 개척의 길을 나선 것. 이제 그의 직책은 전남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노인의료나눔재단 사무처장이다. 이를 위해 상경까지 했다. 길을 만들어온 사람의 길은 이렇게나 다른가 보다.

“노인 인공관절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어르신들에게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게 저희 재단 일이고요. 앞으로 사랑의열매에서도 저희 재단 어르신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웃음)”

견지 못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또 있겠느냐며 마지막까지 관심을 당부하는 이성태 사무처장. 그는 이미 어르신들을 위해 뛰고 있었다. 🍀



착한펫  
프로그램 론칭

#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 이젠 나눔도 함께 해요”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의 ‘애완동물’  
명칭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반려동물’로 대체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사랑의열매에서는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이 주체가 되는  
기부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1 (왼쪽부터) 한국애견연맹  
전월남 사무총장,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부회장,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착한펫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2 착한펫 론칭 선포식에  
함께한 전국 1호 기부자들.  
착한펫 가입 시 반려동물  
이름으로 회원증이 발급된다.

**성숙한 반려문화 만드는 따뜻한 세상**  
지난 9월 6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에서 ‘착한  
펫 론칭’ 선포식이 열렸다. 착한펫은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사랑의열매에서 만든 기  
부 프로그램이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월 2만 원  
이상 정기 기부를 실천하며 반려동물이 기부  
의 주체가 되는 게 특징이다. 개·고양이뿐 아니라 햄  
스터나 도마뱀 등 중에 상관없이 어떤 동물이든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반려동물 명의로 회원  
증을 발급해준다. 모은 기부금은 취약 계층의 반  
려동물 양육비 및 치료비 지원, 취약 계층 반려동  
물 산업 취업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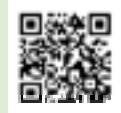
## 중앙회 및 전국 17개 시도 지회별 1호 기부자 탄생

착한펫 론칭 선포식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지회  
별 1호 기부자 가입식도 진행했다. 착한펫 전국  
1호 기부자인 개그맨 김원호·심진화 부부와 반  
려견 태풍이를 비롯해 인천 1호 인테리어 블로거  
이유미 씨와 반려견 순무, 충북 1호 대한무용협회  
충북지부 최원섭 사무처장과 반려견 초코, 광주  
1호 장승태 광주애견협회장(반려견 콩새), 공동  
가입한 전북 1호 유다한 전북애견협회장과 반려  
견 꼬꼬, 이명로 전주애견협회장의 반려견 하늘  
이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가입식에 이어 반려  
동물 기부 프로그램 착한펫 활성화를 위한 MOU  
도 체결했다. 사랑의열매는 대한수의사회, 한국  
애견연맹,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착한펫 프  
로그램 홍보와 반려동물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활성화해 새로운 반려 문화와 나눔문  
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탬 예정이다. 🍀



반려동물과 함께  
세상에 사랑을  
나눠주세요

모바일 간편 가입  
아래 QR코드로 접속한 후  
온라인 간편 신청서 작성



착한펫 전국 1호 기부자들과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가운데)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선포식 현장

### 전국착한펫1호기부자

태풍	중앙 김원호· 심진화 부부	몽실	서울 이성현 서대문 구청장	모찌	부산 홍민지	여울	대구 허경호
순무	인천 이유미	콩새	광주 장승태	공주	대전 이진아	솜이	울산 박정희
소녀	경기 밤하느리	뽀이	경기 북부 박주신	치즈	강원 라은희	초코	충북 최원섭
슷들이	충남 차대중	꼬꼬	전북 유다한	하늘이	전북 이명로	자연	전남 곽언천
제니	경북 장유성	나라	경남 이만기	모찌	제주 김아람	모모	세종 유장현



가수 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위촉

## “나플나플한 나눔을 지켜츄~”

광고와 예능 등 다방면에서 맹활약하며  
상큼 발랄한 매력과 건강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는 ‘인간 비타민’ 가수 츄.  
첫 솔로 앨범 준비, 웹 예능 <별의별걸>  
촬영 등으로 바쁜 나날을 이어가는  
그가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자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가수 츄와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 지난 9월 11일부터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가 방영을 시작했다. 광고에서 츄는 ‘나에게 플러스되는 나눔플랫폼의 줄임말인 ‘나플나플’ 콘셉트를 특유의 밝고 긍정적 에너지로 소화해내며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츄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돼 다시 한번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이어간다. 9월 14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양호영 커뮤니케이션본부장 및 임직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츄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받은 츄는 “사랑의열매 광고 모델에 이어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게 되어 설레고 감사드린다”며 “긍정 에너지로 ‘나플나플’한 나눔의 바람을 일으키며, 나눔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인식 사무총장은 “가수 츄는 밝은 에너지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말한 뒤 “앞으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기분 좋은 나눔의 에너지를 전파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경기 사랑의열매 제7대 권인욱 신임 회장

## “지역 맞춤형 기부 문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주)피유시스 권인욱 대표이사가  
경기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누구보다도 사랑의열매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며  
나눔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온 만큼 회장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그의 각오는 남다르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산업훈장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주)피유시스 대표이사다.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선유산업단지협의회 회장, 파주시행복장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2018년 경기 사랑의열매 아너 가입, 2019년 경기북부 나눔명문기업에 1호로 가입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Q 경기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역대 회장님들이 쌓아 올린 성과를 이어받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경기도 전역에 선한 나눔의 연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Q 지역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내 22개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지역 기업의 사회 공헌을 확대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군별로 지니고 있는 고유성과

잠재력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기부 문화를 주도하겠습니다. 기업이 다수 분포된 시군은 나눔명문기업과 아너 소사이어티를 활성화하고, 이웃 간 정이 많은 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소액 기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Q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지요?

기업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싶습니다. 사랑의열매가 주도하는 사회 공헌 포럼을 개최해 기업 사회 공헌 파트너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업은

물론 다양한 단체와도 활발하게 소통하며, 지역별로 기부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 Q 회장님께 나눔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눔은 돌고 돌아오는 연결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이웃을 돕는 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현재까지 무탈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분의 협조와 지원, 그리고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부산·경남 물류의 시작점 수정산투자(주)

## 터널의 끝에서 지역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다

수정산투자(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MKIF, 국내 KOSPI 상장)가 투자한 곳으로, 부산·경남 물류의 시작점인 수정산터널을 운영·관리하는 기업이다. 기존 경로를 30분에서 5분 이내로 단축하며 물류 혁신을 이뤄낸 수정산투자는 사회 공헌에서만큼은 긴 호흡으로 꾸준한 지원을 선보인다. 글강보라 사진수정산투자(주)

부산진구청에서 감사패를 받는 모습. 친구네 공간을 비롯해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후원 공로를 인정 받았다.



수정산터널은 부산의 상업 중심 지역과 부산항을 연결하고, 백양터널과 함께 부산의 북부·서부 외곽 지역과 김해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2.3km의 왕복 4차선 유료 터널이다. 부산항의 주요 교통 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통행료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수정산투자의 사회 공헌은 부산 지역에서 '어둠 속의 빛'으로 통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터널 밖의 빛으로 존재하며 장기 지원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2002년 개통과 함께 시작한 사회 공헌은 부산 사랑의열매의 인연을 맺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12년부터 체계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부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폈다. 매년 이웃 돕기 모금에도 동참하며 사랑의온도탑을 뜨겁게 달궜다. 수정산투자의 연말 기부금은 동구 및 부산진구 지역 소외 계층의 월동 난방비,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후 부산 16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며 지역사회 후원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다. 수정산투자는 "개통 20년을 맞아 부산 시민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가입 인사를 전하며 나눔의 행보를 꾸준히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 터널의 끝에서 빛이 되는 지역사회 지원

'친구네 공간'은 성공적인 민간 협력 복지 서비스로 꼽힌다. 부산진구청이 코로나19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복지 제도로, 부산진구 주민이라면 3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회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물품은 즉석밥 과국, 라면, 통조림, 칫솔, 치약, 비누 등이다. 이곳은 구청이 운영하지만 예산은 들지 않는다. 개인, 단체, 기업 등의 기부와 후원품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수정산투자는 친구네 공간의 든든한 후원자다.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운영 취지에 공감해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친구네 공간은 어렵고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위한 실용적 복지 제도로 평가 받는다. 기존 복지 서비스는 신청 시 최소 한 달의 조사 기간을 거쳐 저소득층임을 증명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수정산투자가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며 사회 공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푸드마켓 역시 긴급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 계층 등으로 이용 대상이 한정된다. 하지만 친구네 공간은 이용 신청서와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만 내면 누구든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 누구나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수정산투자는 친구네 공간에 물품을 가득 채우는 후원으로 생계가 어려운 부산진구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겨울이면 수정산투자 임직원이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김치를 담그며 이웃들의 겨울 식량을 준비하거나 조손 가정과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수정산투자만의 월동 준비를 이어간다.

### 희망의 빛으로 일상을 바꾸는 청소년 지원

☞ 아동·청소년 지원은 내일의 희망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다. 수정산투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수정산터널 주변 학교인 개성중학교, 가야여자중학교,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백양종합사회복지관 등의 한부모·조손 가정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후원은 인재 육성을 넘어 지역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장학금 후원 외에도 아동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GOOD食' 사업과 조손 가정을 지원하는 'DREAM' 사업도 눈길을 끈다. GOOD食은 음식을 통해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돕는 푸드 아트 테라피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식재료로 푸드 아트를 만들며 음식과 친해지는 시간을 제공한다.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배우고, 아이들 입맛에 맞춘 레시피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것이다.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GOOD食'이라는 이름처럼 음식에 대한 정보는 물론, 식사 예절까지 두루 배울 수 있는 아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시 사상구 지역의 저소득 조손 가정을 위한 DREAM 사업은 아동 놀이 프로그램이다. 각 가정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놀이를 지도해 조부모 양육의 어려움을 덜고, 손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성장을 돕는 놀이는 아동 발달에서 필수적이다. 달리기, 점프 등 신체 놀이는 물론 퍼즐, 게임 등 인지적 놀이는 문제 해결 및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놀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놀이를

1, 2 수정산투자 직원들의 플로깅 모습. 가야동의 환경 지킴이들은 플로깅 중에도 지역 주민들과 밀착 교감을 이어간다.



부산시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의 관문 대로인 수정산터널 모습. 요금소 상부에 조성된 감고개공원은 지역 주민들 만남의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매개로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즐기다 보면 세대 차이가 줄어들며 1·3세대의 자연스러운 통합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먹고 놀면서 배우는 수정산투자의 아동·청소년 지원은 어두운 터널 속 한 줄기 빛으로 통하며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 탄소 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소중함한 걸음

☞ 수정산투자는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정산터널 요금소 위쪽 가야동 일대를 누비는 플로깅은 수정산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다.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시작되면 쓰레기봉투와 집계를 든 임직원이 수정산터널로 집결한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활동에 나서는 가야동 환경 지킴이다. 플로깅은 환경보호 활동과 함께 칼로리 소비 운동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직원들의 적극적 호응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것도 플로깅만의 장점이다. "쓰레기를 치워서 기분이 상쾌하고, 살이 빠져서 건강해지며 여기에 고맙다는 칭찬까지 들으니 이보다 더 좋은 환경 활동은 없는 것 같다"는 후기에서 볼 수 있듯 플로깅 활동은 주민들과 수정산터널을 이어주는 기분 좋은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조는 나눔 활동에도 이어진다. 매년 진행하는 '행복·나눔 바자회' 행사는 물품 기부를 통해 마련되는데,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하고 경매에 부쳐 수익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형태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친환경 기부 경매로 자리 잡았다. 행복·나눔 바자회로 환경과 이웃 돕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Net-Zero'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등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위한 일상의 작은 실천도 이어가고 있다.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 수정산투자의 사회 공헌은 터널 속 이웃들을 위해 존재한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기에 더욱 각별하게 느껴지는 활동들이다. 수정산투자의 임직원은 이웃과 함께 호흡하며 빛으로 가득한 내일을 꿈꾼다. 따뜻한 온기와 밝은 빛을 전해 주는 수정산투자의 사회 공헌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



#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 활기찬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시니어들이 달라졌다. 은퇴 이후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기존 실버 세대와 달리 제2의 삶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다. 이들을 일컫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배움을 즐기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내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준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모든 시니어가 활기찬 인생 2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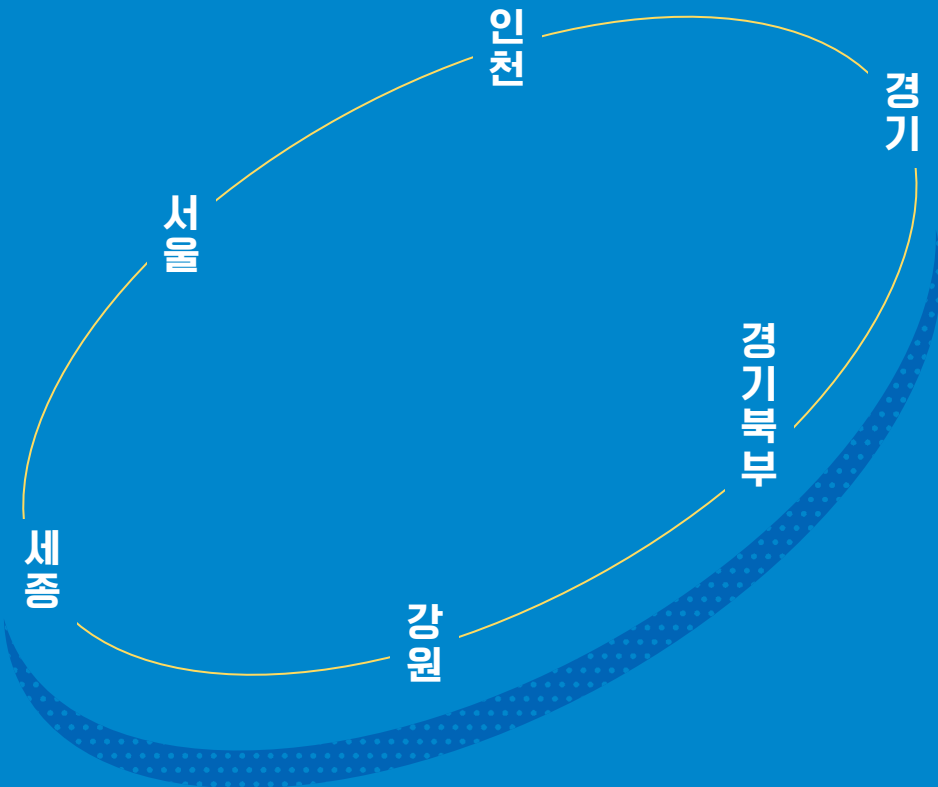


### 다른 부분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10월







# 서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추대엽과 방송인 이익선 “공식 나눔 메신저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방송인 이익선 씨와 개그맨 추대엽 씨가 서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따뜻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기부와 봉사로 선행에 앞장서온 이들의 훈훈한 소식을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개그맨 추대엽(카피추)



방송인 이익선

## 새로운 홍보대사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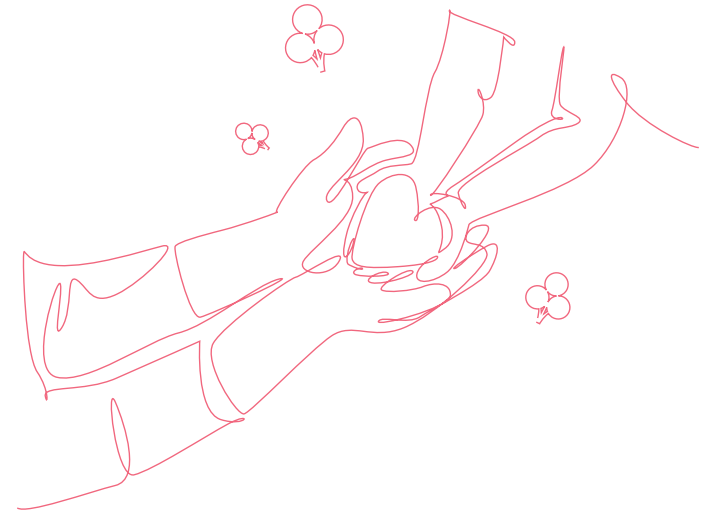
올여름, 서울 사랑의열매를 대표할 새로운 홍보대사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개그맨 추대엽 씨와 방송인 이익선 씨다. 먼저 지난 7월 14일 개그맨 추대엽 씨의 위촉식이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있었다. 이어 8월 28일에는 방송인 이익선 씨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이익선 씨는 1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해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두 분의 활약이 기대된다”면서, “서울 사랑의열매 공식 나눔 메신저로 나눔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 부캐 열풍, 나눔 열풍!

개그맨 추대엽 씨는 순수 창작 크리에이터로 사랑받고 있는 일명 '카피추'로 유명하다. 카피추란 그의 부캐릭터로, 지금 유행하는 부캐 열풍의 원조 격이다. 추대엽 씨는 홍보대사로 위촉되기 전부터 무려 7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능 기부 및 봉사 활동을 이어왔을 정도로 나눔에 진심이다. 그는 위촉식에서 “욕심 없이 살아왔지만, 내가 지닌 재능을 필요한 곳에 나누고 싶어 홍보대사에 욕심을 냈다”면서,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 나눔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기념 촬영 중인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과 개그맨 추대엽 씨,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이익선 씨는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 날씨 여신에서 기부 여신으로

우리나라 1호 여성 기상 캐스터로 알려진 방송인 이익선 씨도 이웃을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와 손을 맞잡았다. 원조 날씨 여신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바쁜 방송 활동 중에도 기부와 봉사에 앞장서고, 2012년에는 장기 기증 서약을 약속하는 등 남다른 선행을 실천해왔다. 홍보대사 위촉식과 나눔리더 가입식에서 이익선 씨는 “내가 지닌 재능을 이웃을 위해 쓰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며, “홍보대사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 나눔의 씨앗을 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따뜻한 각오를 전했다. ♡



## 첫발 내디딘 고려인 가정 양육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 “비로소 고향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고려인 가정 양육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이 시행 2년 차를 맞았다.  
국적과 언어, 문화 등을 떠나 돌봄이라는 공통의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로 서로 하나 되어  
선주민과 고려인이 함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글 강은진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사회적 돌봄 사업을 통해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며 다시 웃음을 찾은 인천시 연수구 고려인 엄마들과 아이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남편을 보면 어린이집 비용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돌봄 지원을 받고 개인 시간도 가지고,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 고려인 엄마 K 씨

### 도움 절실한 고려인 엄마들

인천사랑의열매 2022년도 신규 기획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는 '사각지대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이 따뜻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5~7세 자녀를 둔 고려인 양육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인천 연수구는 고려인 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고려인 동포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특히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해 대부분의 고려인 가정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가정 양육을 하고 있었다. 돈을 벌러 이곳에 왔지만, 아이 양육으로 외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었다. 인천시 역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처우 및 정착



우리애(愛)돌봄교실에서 진행한 고려인 어린이의 생일 파티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고려인 가정 보육비 같은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인천사랑의열매가 함박종합사회복지관과 손잡고 고려인 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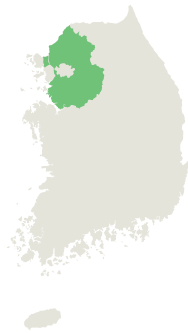
### 선주민과 고려인 화합까지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은 심과 회복, 학습 등 보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돌봄의 주 대상이던 아동이 아닌 양육자 중심으로 유희 시간을 확보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고려인 엄마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겁다. 고려인 엄마 A 씨는 한국 생활 적응이 힘들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또 B 씨는 몸이 아파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병원조차 갈 수 없어 고생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향수병도 치유하고 베이킹과 바리스타 수업 등 직업교육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려인 양육자를 돕는 사회적 돌봄 사업은 단순히 보육 지원이 아닌 '주민 참여', '다양성 존중', '협동 공동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선주민과 고려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또 한국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 동포로서 고향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정주 의식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인천 사랑의열매 2022년도 신규 기획 사업 전달식





# 안양시 28개 기부 기업에 ESG나눔기업패를 전달한 경기 사랑의열매 ‘경기도에 불어오는 기업의 새로운 나눔 바람’

안양시를 비롯해 용인, 김포, 광주, 안성, 의왕 등에서 ESG나눔기업패 전달식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기업들이 그 중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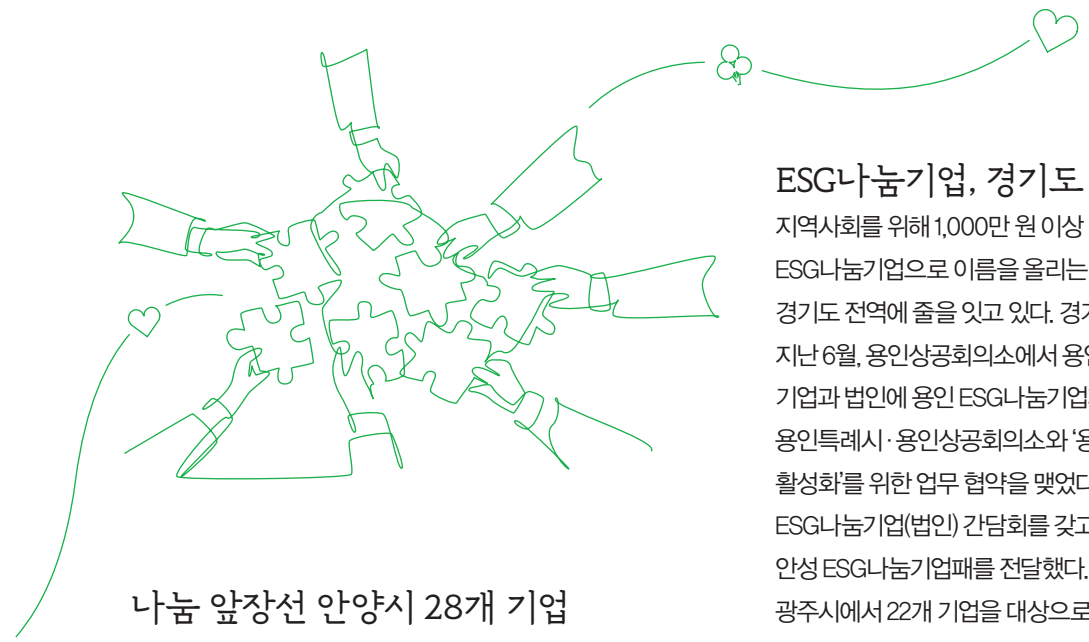
글강은진 사진경기 사랑의열매



최대호 안양시장(앞줄 가운데),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병우 민간공동위원장(시장 오른쪽), 경기 사랑의열매 김효진 사무처장(시장 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안양시 ESG나눔기업패 및 착한기업 감사패 전달식

“ESG나눔기업(법인)은 ESG 경영을 실천하며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연 1,0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기업(법인)을 의미하며, 현재 경기도 나눔문화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 사랑의열매 김효진 사무처장



## 나눔 앞장선 안양시 28개 기업

경기도에 따뜻한 나눔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 진원지는 기업들이고, 중심에는 경기 사랑의열매 'ESG나눔기업(법인)'이 있다. 이는 ESG 경영을 실천하며 연 1,0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기업에 'ESG나눔기업' 인증패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경기 사랑의열매 기업 기부 프로그램이다. 먼저 지난 8월 30일, 안양창업지원센터 대강당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안양시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28개 기업(법인)에 대한 안양 ESG나눔기업패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병우 민간공동위원장, 경기 사랑의열매 김효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ESG 경영과 함께 더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업과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양시에 새로운 나눔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착한기업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양 만들기’에 참여하며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2,000만 원 이상 기부한 11개 기업과 법인에 대한 ‘안양 착한기업’ 인증패 전달식까지 진행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ESG나눔기업, 경기도 전역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기부하며 ESG나눔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는 기업(법인)이 경기도 전역에 줄을 잇고 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6월,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용인 지역 33개 기업과 법인에 용인 ESG나눔기업패를 전달하고, 용인특례시·용인상공회의소와 ‘용인특례시 ESG나눔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어 7월에는 안성시와 ESG나눔기업(법인) 간담회를 갖고 11개 기업과 법인에 안성 ESG나눔기업패를 전달했다. 또 같은 달 경기 광주시에서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 ESG 나눔기업패 전달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포시, 의왕시 등 경기도 전역으로 경기 사랑의열매 ESG나눔기업패 전달식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사랑의열매 김효진 사무처장은 “환경과 사회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생각해주는 경기도의 많은 기업 및 법인에 감사를 드린다”며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과 법인에 전달한 나눔의 바람을 상징하는 기념 부채와 ESG나눔기업패





## 남양주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나눔 시민 발걸음 기부, 상상 더 이상의 가치

남양주시는 '나눔 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나눔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엔 시민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발걸음 기부를 시작했다.

글 이선희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지난 8월 28일 남양주시청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 모습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걸기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부 문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나눔의 손길이 상상 더 이상의 나눔으로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 주광덕 남양주시장

### 걷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기부를 거창하게 생각한다. 이에 일상에서 나눔을 좀 더 가까이하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남양주시에서 진행되는 발걸음 기부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와 남양주시, (주)체리,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양주시걷기연맹이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 발걸음 기부, 상상 더 이상의 가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00걸음당 1원씩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기부되어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된다. 남양주 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도 스마트폰 걷기 앱인 체리워크를 이용해 걸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 기부 문화의 새로운 장 열어

지난 8월 28일 남양주시청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노진선 본부장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주)체리 이수정 대표이사, 남양주시걷기연맹 양범석 회장, 16개 읍·면·동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걸기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부 문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라며 “작지만 소중한 나눔의 손길이 상상 더 이상의 나눔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주)체리 이수정 대표이사는 “기술을 통한 나눔과 공감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고, 소외된 분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자사의 비전이다”라며 “자사의 기술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 시민 발걸음 기부, 우리 함께 걸어요

- 1 스마트폰에 체리 앱을 다운받아 실행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다.
- 2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체리워크 메뉴를 클릭한다.
- 3 기부 비율을 설정한다.
- 4 남양주 시민 발걸음 기부 배너 클릭
- 5 기부하고 싶은 읍·면·동 캠페인 선택
- 6 걷기 시작하면 발걸음이 기부된다.







### 강원특별 나눔 온(ON)

## “강원상품권으로 소중한 진심을 전해요”

최근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지역 상품권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나눔 온(ON)’을 선보였다.

글 이선희 사진 강원사랑의열매, 강원특별자치도



(왼쪽부터) 강원상품권 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경제부지사,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최통주 이사장

### 플랫폼 기부 서비스 정착 위해 맞손

지난 9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강원 사랑의열매, 강원특별자치도,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이 모바일 강원상품권 기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모바일 강원상품권 플랫폼을 통한 기부 부가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계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기부 문화 확산 및 강원상품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 이에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경제부지사,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한결원 최통주 이사장이 손을 잡으며 강원특별 나눔 온(ON)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선보였다. 협약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기부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홍보, 강원 사랑의열매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 모금 및 집행, 한결원은 원활한 플랫폼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 도내 곳곳에 디지털 모금함 설치

지난 9월 11일부터 강원상품권 앱에서 모바일 강원상품권 플랫폼 기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 실행 시 서비스 메뉴 하단에 ‘기부하기’ 메뉴를 누르면 참여할 수 있으며, 강원상품권 결제 잔액(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또한 QR코드를 스캔해 나눔을 실천하는 디지털 모금함도 강원 곳곳에 설치된다.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18개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며, 유명 관광지에도 설치를 제안하는 중이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도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사업 및 긴급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

“고물가로 위축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모바일 강원상품권 기부 서비스를 통해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작게나마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협조 바랍니다.”

-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경제부지사



• 해당 QR코드는 강원상품권 앱에서 스캔 시 활성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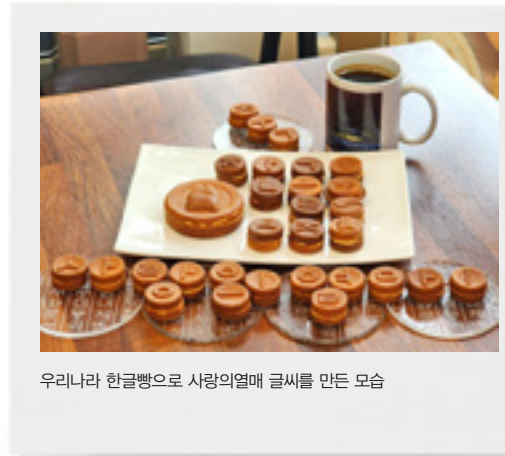


## 세종시 착한가게 700호로 가입한 ‘한글빵’ 서영석 대표 “세종 한글빵, 이제 이웃과 함께합니다!”

대전에 성심당, 천안에 호두과자가 있다면 세종엔 세종 한글빵이 있다.  
세종시를 넘어 전국구로 발돋움하는 한글빵 착한가게 700호점의 맛있는  
나눔 이야기를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 세종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세종시 보람동 한글빵 본점에서 진행된 착한가게 700호 가입식에 참석한 세종 사랑의열매 이경아 사무처장, 한글빵 주해영 대표 매니저, 최민호 세종시장, 한글빵 서영석 대표



우리나라 한글빵으로 사랑의열매 글씨를 만든 모습

### 한글빵을 아시나요?

세종시 착한가게 700호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한글빵이다. 지난 8월,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한글빵 본점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한글빵 서영석 대표, 세종 사랑의열매 이경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식이 진행됐다. 특히 한글빵의 이번 가입은 2013년 4월 세종시 착한가게 1호점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700호점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다. 가입식에서 서영석 대표는 “세종시 착한가게 700호 주인공이 된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되돌려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글빵은 대전 성심당, 천안 호두과자에 버금가는 세종시 대표 빵이다. 다른 지역처럼 세종시를 대표하는 특산품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영석 대표가 개발했다. 밀가루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세종 쌀과 조치원 복숭아 등 지역 농산물로 만든 건강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다음 꿈은 아너 소사이어티

한글빵 서영석 대표는 착한가게 가입 이전부터 많은 선행을 실천해오고 있다. 한글빵 본점 오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한글빵 1만 개를 기부했고, 수해 복구 봉사자들에게 300개, 세종시 방문 불가리아 챔버리 대원들에게 120개를 후원했다. 또 한글빵 제작 기술을

곳곳에 전수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경영 윤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런 서영석 대표의 선한 노력은 세종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한글빵이 선정되는 경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는 “세종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기념품으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업 포부를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 쌀과 조치원 복숭아로 만드는 건강한 한글빵이 전국에 알려져 세종시 위상도 함께 높아지길 바란다”며, “세종시 소상공인들도 코로나19 상흔을 벗고 무궁무진하게 성장해나간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글빵 서영석 대표의 다음 도전은 대한민국 대표 고액 기부자클럽 아너 소사이어티다. 또, 한글빵과 더불어 열매빵을 만들기 위해 세종 사랑의열매와 착한소비(CRM) 나눔캠페인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며 지회를 통해 주문한 매출의 10%는 주문한 지회에 기부하기로 하고 현재 디자인작업 중이다. 나눔의 큰 꿈을 꾸고 있는 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

“세종시와 한글을 알리려고 시작한 한글빵 사업.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한글빵 서영석 대표



출시 6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글빵. 많은 유명인도 함께하고 있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3209호(제주 138호)

**김석곤 장수들림대 제주점 대표**

"나눔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전국 3210호(대구 222호)

**박우현 스마트치과 수성점 원장**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웃을 돕고 나누고 싶습니다."

전국 3216호(서울 396호)

**최연호 (주)블루밍농산 대표**

"다 같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전국 3226호(울산 121호)

**천항수 울산광역시 교육감**

"이웃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전국 3228호(서울 397호)

**故 김선희**

"내 돈을 뜻깊은 곳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전국 3229호(서울 398호)

**심석 개인 투자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전국 3230호(충북 76호)

**이재웅 (주)중부개발 이사**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해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3232호(전북 98호)

**김성의 마음사랑병원 이사장**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전국 3234호(충북 77호)

**김순배 청우산업(주) 회장**

"저의 작은 정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3236호(부산 327호)

**박병길 은산건설(주) 대표이사**

"나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보답입니다."

전국 3238호(경기 319호)

**이병미**

"나눔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전국 3231호(전북 97호)

**이현민 전주열린병원 병원장**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은 우리가 나눈 것뿐입니다." -마더 테레사-

전국 3233호(전북 99호)

**양봉식 (유)해송운수 대표**

"함께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전국 3235호(충북 78호)

**김민호 (주)원건설 회장**

"나눔을 통해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국 3237호(부산 335호)

**허혁필 코리아갈바(주) 회장**

"배려는 관심으로부터."

전국 3245호(대구 228호)

**권분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평생 사회로부터 받아온 사랑에 보답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강원 안광진 (주)광진육가공 대표**



중앙회

2023년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 모델로 가수 비와 추 참여



가수 비(정지훈)와 추(김지우)가 사랑의열매 2023년 연중 광고 모델로 참여했다. 훈훈하고 사랑스러운 비와 인간 비타민 추의 특급 케미스트리가 넘치는 이번 광고는 대한민국에 '나플나플'한 훈풍을 예고하고 있다. 나플나플은 '나에게 플러스되는 나플플랫폼'의 줄임말로, 연중 광고의 주요 콘셉트다. 광고 속 비와 추는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나의 기부가 만드는 더 큰 세상'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부 효능감을 전한다. 또한 경쾌한 음악에 맞춰 기부의 가치를 즐거운 무드로 표현한 나플나플 댄스도 주요 감상 포인트. 사랑의열매는 광고 연계 참여 이벤트로 지난 9월 25일부터 나플나플 댄스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나플플랫폼인 사랑의열매는 작은 금액으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원하는 지원 대상과 분야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2022년 7,334억 원으로 약 3만 개의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대상 및 분야의 사업을 지원했다.

추석맞아 저소득 가정에 134억 7,000만 원 지원

사랑의열매가 추석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34억 7,000만 원을 배분했다. 올해는 경제 불황과 고물가, 여름 내 이어진 폭염·폭우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정을 포함해 쪽방 거주민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약 20만 명이다. 의료비 및 생계비 등 현금 약 106억 원과 명절 음식·제수용품·생필품 키트 등 14억 원 상당의 현물, 지역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14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지원금 및 물품은 전국 지자체와 1,188개 배분 협력 기관을 통해 이웃에게 전달했다.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은 "국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성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풍성한 추석 명절을 선물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지원 사업 총 10억 원 배분



서울 사랑의열매가 서울시 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지원 사업에 총 10억 원을 배분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 침체와 기후 위기 등으로 갑작스럽게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진행한다. 2022년엔 약 3,500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수해 이재민과 에너지 취약 계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한 사회복지시설 35개소에 기능 보장비 지원



서울 사랑의열매가 노후한 사회복지시설 35개소에 기능보장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했다. 그동안에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일반 시설 및 단체로 대상을 넓혔다. 공모에 신청한 132개소 가운데 공정한 심사를 거쳐 3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금은 시설 화장실 개보수, 계단 공사, 가전 구입 등에 사용한다.

부산

7명의 신규 아너 가입으로 나눔명문가 세 가족 탄생



지난 8월 25일 부산 패밀리 아너가 대거 탄생했다. (주)지맥스 정성우 회장의 모친,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회장의 자녀 2명, (주)디알종합건설 황익순 회장의 아내와 두 자녀에 사위 1명까지 총 7명이 신규 아너로 가입했다. 이번 가입으로 한 가족당 3명 이상이 아너 회원이 되면서 세 가족 모두 나눔명문가(家)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부산 나눔리더 66호 흥민지 씨 반려견 모찌, 착한펫부산 1호 가입



부산 나눔리더 66호 (주)보명금속 흥민지 대리의 반려견 '모찌'가 부산 착한펫 1호로 가입했다. 흥민지 대리는 2016년부터 유기 동물 보호소에 꾸준히 정기 후원을 이어오던 중, 착한펫을 통해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결심했다. 그는 "지역 이웃부터 유기 동물까지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대구

2023년 지역 특화 기획 사업  
배분금 전달식 개최



대구 사랑의열매가 2023년 지역 특화 기획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배분한다. 사업은 ▲아동의 사회적 향상을 위한 건강한 놀이 문화 조성 ▲장애인 재능 대응 역량 강화 ▲우리 마을 환경 감수성 제고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하며, 공모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사업비는 2023년 8월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추석 명절 맞아 저소득 어르신에게  
송편 나눔



대구 사랑의열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12일 달성군남부노인복지관에서 '나눔으로 달달하고 풍성한 한가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만든 송편을 비롯해 잡곡 등을 달성군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원했다. 이날 대구 사랑의열매는 달성군에 1억 700만 원의 명절 지원금도 함께 전달했다.

광주

골드클래스, 보훈 가족 위한  
성금 1,000만 원 기탁



골드클래스(회장 박철홍)가 보훈 가족 사랑 나눔 연합 모금에 첫 기부자로 참여하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저소득 보훈 가족의 생계비 및 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 장학금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철홍 회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해 기부에 참여했다"며 유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비 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회장 박병철)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광주사회혁신네트워크의 쪽방촌 및 노숙인 지원 사업비와 광주 YMCA솔빛타운의 폭력 피해 여성 쉼터 지원 사업비로 쓸 예정이다. 박병철 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사회 구석구석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들,  
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 성금 기탁



K리그1 소속 프로 축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대표이사 전달수)가 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6만 310원을 기탁했다. 인천시와 시민, 기업이 함께 출범시킨 인천 유나이티드는 창단 이래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펼쳐왔다. 전달수 대표이사는 "선수들과 심심일만 뜻을 모았다"며 "이재민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 현장 인프라 강화 사업  
지원금 전달



인천 사랑의열매가 사회복지시설 60개소에 복지 현장 인프라 강화 사업 지원금 5억 8,3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시설 개보수와 장비 보강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10년간 총 29억 6,700만 원을 사업 지원비로 배분했다.

대전

나눔을 실천하는 반려동물,  
도마뱀 공주의 착한펫 대전 1호 가입



이진아 씨의 반려동물인 도마뱀 '공주'가 착한펫 대전 1호로 가입했다. 2017년부터 공주를 키우기 시작한 현재 5마리의 도마뱀과 함께 살고 있는 이진아 씨는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는 착한펫 론칭 소식을 듣고 고민 없이 바로 가입을 결정했다"며 "반려동물이 주는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를 기부로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판암3단지아파트 경로당·판암사회복지관,  
호우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대전 동구 판암3단지아파트 경로당과 판암사회복지관, 행복어린이집, 판암3단지관리사무소 및 지역주민 일동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함께 모은 성금 175만 원을 대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해 마련했으며, 수해 이재민 지원에 사용했다.



울산

NH농협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전달



NH농협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센터장 김원배)가 지난 8월 14일 남구청을 방문해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남구 지역 청소년 10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지원됐다. 김원배 센터장은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장,  
울산 46호 나눔리더 가입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장이 매월 10만 원의 정기 기부를 약정하며 울산 나눔리더 46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울산에서 시·구·군의원이 나눔리더에 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환 의장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도록 나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파주시이웃과 함께하는  
추석맞이나눔 행사 진행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 사랑의열매 권안옥 회장,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청 관계자 및 시민, 기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햇곡식 세리머니로 시작했으며, 다 같이 송편을 만들어 따로 준비한 추석 물품과 함께 파주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미래인재양성 위한 장학 사업 업무 협약 체결



파주시 행복장학회(이사장 김영숙)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와 파주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자원을 발굴해 나눔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영숙 이사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

SK하이닉스·경기도,  
전국 최초 재난 현장 봉사자 쉼터버스 도입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전국 최초로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버스’를 운영한다. 버스는 SK하이닉스의 기부로 마련한 것으로, 내부에는 편안한 휴식을 위한 좌석과 함께 상황실과 소통할 수 있는 화상회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다. 경기도는 2033년까지 재난 현장과 다양한 자원봉사 현장에 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소녀의행성> 주인공 소녀,  
경기1호 착한펫 가입



구독자 수 101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소녀의행성>을 운영하는 유튜버 밤하늘리의 반려견 ‘소녀’가 사랑의열매 신규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펫 경기1호로 가입했다. 유튜버 밤하늘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착한펫 같은 기부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

반려동물과 함께나눔 실천하는  
착한펫 단체 가입식



강원 사랑의열매가 지난 9월 6일 강원 착한펫 1, 2, 3호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가입식에 참석한 1호 기부자 ‘치즈’와 보호자 라은희 씨, 2호 ‘대주’와 김혜승 씨, 3호 ‘구름’과 오세광 씨에게 착한펫 회원증을 전달했다. 춘천시나눔봉사단 사무국장인 라은희 씨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릉 아너 회원들,  
청소년 속옷 지원 사업에 후원금 전달



강릉 아너 회원인 건도리횃집 신건혁 대표와 세븐일레븐 강릉세인트존스점 심상백 대표, 신도시종합건설 정연권 대표가 청소년 속옷 지원 사업에 써달라며 각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강릉교육지원청과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청소년 100명의 속옷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충북

2023년 맞춤형 여가활동  
지원사업 배분금 전달식



지난 9월 15일 충북 사랑의열매가 2023년 맞춤형 여가 활동 지원 사업 배분금 전달식과 수행 기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 기관 10개소를 선정하고, 총 1억 2,824만 원을 배분했다.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호우 피해 지원 특별 성금 전달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경화)가 지난 8월 1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성금 267만 원을 전달했다. 박경화 회장은 “집중호우와 이어진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나눔에 동참했다”며 “연합회 소속 지역아동센터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힘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

2023년 배분 사업 평가지원단  
워크숍 진행



전북 사랑의열매가 배분 사업 평가지원단의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평가 체제 개편의 주요 현황과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11기 평가지원단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임원진을 선출했으며, 배분 사업 평가 방향 설정과 실습 등을 수행했다. 평가지원단은 워크숍을 통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 기관 15개소에  
복지사업 지원비 1억 2,400만 원 배분



전북 사랑의열매가 긴급한 사회문제 및 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기관 15개소에 1억 2,400만 원을 배분했다. 참여 기관은 자유 주제 공모에 신청한 기관들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지원금은 노후 시설 개보수, 생활 시설 물탱크 교체, 가정 위탁 아동 심리 치료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충남

한국중부발전(주),  
노사 공동 희망나눔차 전달식



지난 9월 11일 한국중부발전(주) 본사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희망나눔차’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국중부발전(주)는 지난 2018년부터 노사가 함께 재원을 조성해, 지역 사회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 총 15대를 지원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친환경 전기차를 전달했다.

천안 지역 이마트 4개소,  
착한소비 업무 협약 체결



이마트 천안점·천안서북점·천안터미널점·펜타포트점이 충남 사랑의열매와 착한소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소비자는 4개 지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이마트 앱에서 총구매액의 0.5%를 적립하고, 적립금을 충남 사랑의열매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천안 지역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남

(주)대신기공·(주)용호기계기술,  
나란히 나눔명문기업 가입



(주)대신기공(대표이사 김철희)과 (주)용호기계기술(대표이사 정성호)이 전남 10호·11호 나눔명문기업으로 함께 가입했다. 김철희 대표이사와 정성호 대표이사는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더없이 영광”이라며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아너 회원인 두 사람은 지역 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녹동현대병원,  
착한병원 가입으로 지역 사랑 실천



고흥군 도양읍에 위치한 녹동현대병원(원장 백인규)이 전남 사랑의열매 착한병원으로 가입했다. 성금은 고흥군 관내 복지사업비로 사용한다. 녹동현대병원은 지역사회 고령화로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르신에게 중요한 내과 및 정형외과 등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녹동 의료자원 봉사단’을 구성해 매주 방문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

경상북도청 직원들,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경상북도청 직원들이 모금으로 마련한 이웃 돕기 성금 1억 7,798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번 모금은 지난 8월 3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으며, 도청과 소방본부 및 시군 소방서, 경상북도 공공 기관 직원 등 6,96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로 다가갈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블루원,  
6,000만 원 상당 워터파크 무료 이용권 기부



컨트리클럽과 리조트,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주)블루원(대표 윤재연)이 경북 사랑의열매와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블루원 워터파크 무료 이용권 2,000장을 기부했다. 블루원은 워터파크 개장 이래 매년 여름 인근 지역 주민과 경주시 저소득 주민을 초대해왔다. 윤재연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행사를 재개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발달장애인 지원 성금 전달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대표이사 회장 김기병)가 지난 9월 1일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관장 김정옥) 개관식에서 도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롯데관광개발(주)가 운영하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2020년 오픈한 이후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대승엔지니어링,  
2,000만 원 상당 도서 기탁



수 처리 관련 기계 전문 업체 (주)대승엔지니어링(대표이사 최병천)이 2,000만 원 상당의 도서 1,251권을 기탁했다. (주)대승엔지니어링은 2009년 설립한 이래 다수의 특허와 성능 인증을 보유하고, 정부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은 국내 대표 환경 기계 전문 기업이다. 이 도서는 구좌농공단지에 제주 공장이 입주하며 지역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경남

신창기계(주) 구자도 대표이사,  
기부 동참하며 아너 가입



중장비용 가공품 전문 제조 기업 신창기계(주) 구자도 대표 이사가 경남 153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구자도 대표이사는 평소 발달장애 어린이집 후원,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마산 관현악단 결연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 마산합포구협의회장으로 일하며 지역을 위한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수AMS(주) 전종인 회장,  
아너 가입으로 나눔문화 확산



우수AMS(주) 전종인 회장이 경남 154호 아너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종인 회장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탠다”고 말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많은 분이 동참해 더 큰 복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AMS(주)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경남 대표 중견 기업이다.

세종

한화첨단소재,  
지역 아동들에게 친환경 빈백 선물



한화첨단소재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1,000만 원 상당의 빈백 의자 42개를 세종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영명보육원 및 아름굴렁쇠 방과후이카데미에 전달했다. 한화첨단소재는 2022년에 처음 빈백을 제작했으며, 아동·청소년이 독서와 휴식 시 잘 활용하고 있다는 후기를 전해 듣고 올해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인,  
사랑의열매 회보 우편 발송 봉사 활동



세종시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유재옥)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랑의열매> 회보 우편 작업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봉투에 우편 주소 라벨을 붙이고, 회보와 세종지회 소식지를 넣는 작업에 참여했다. 유재옥 센터장은 “이용인의 교육과 자존감 상승에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봉사 활동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상한 이상해씨



여름은 다 갔지만 아직도 낮에는 따운 공기가 남아 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밤 산책을 가기로 했다.  
 얘 나가서 한 바퀴 걸자.  
 싫은데.  
 자기 전에 걸으면 불면증에 도움이 된대.



요새 내가 못 자는거 어떻게 알았어?  
 너, 코 골잖아. 요즘 통 코를 안 골길래.



잠벨에 우는 소리  
 짹짹가는 가로등



어쩐지 넉넉한 저녁 풍경 속을 걷다 보면 가끔 미래의 일을 상상하곤 해.  
 밤 산책 좋네!  
 그래, 가끔 걸자.



나중에 나도 엄마 집을 나가서 독립하면 이 많은 불빛 중 나도 또 하나의 불빛이 되겠지.



독립해서 혼자 살게 되면 외로울까?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  
 누나, 어묵 파네! 먹고 가자



얘 넌 내가 고민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잘 아나?  
 누나 배고프잖아.



누난 배고프면 안 돼. 까칠해져서 주변 사람이 힘들어.

아니 이 지식... 나를 너무 잘 아는데?



##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 |      |              |      |              |
|------|--------------|------|--------------|
| 중앙회  | 02-6262-3000 | 서울지회 | 02-3144-0101 |
| 부산지회 | 051-790-1400 | 대구지회 | 053-667-0530 |
| 인천지회 | 032-456-3333 | 광주지회 | 062-222-3566 |
| 대전지회 | 042-347-5171 | 울산지회 | 052-270-9000 |
| 경기지회 | 031-220-7900 | 경기북부 | 031-906-4028 |
| 강원지회 | 033-244-1662 | 충북지회 | 043-238-9100 |
| 충남지회 | 041-635-0340 | 전북지회 | 063-282-0606 |
| 전남지회 | 061-902-6800 | 경북지회 | 054-650-2600 |
| 경남지회 | 055-270-6700 | 제주지회 | 064-755-9810 |
| 세종지회 | 044-863-5400 |      |              |



##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